
2026 베트남 경제사절단 파견 결과보고

2026. 5

KBIZ 중소기업중앙회

1

출장 개요

□ 기본개요

- 출장목적 : 베트남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대통령 공식 순방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경제사절단 파견
- 출장기간 : 4.20(월) ~ 4.24(금) / 4박 5일
- 출 장 지 : 베트남 하노이
- 참 가 자 : 중앙회장, 권혁홍 수석부회장, 김신길·김한영·이한욱·강동한·박평재·최우각 부회장
* (실무) 김철우 실장, 조경욱·박모현 대리

□ 주요일정

일 자	주요 일정
4.20 (월)	[출국] 인천 - 하노이 08:00 - 10:50 (4h50m, KE441)
	○ (17:00) 닌빈성 지도부 간담
4.21 (화)	○ (10:00) 연방 산업단지 시찰
	○ 이동(닌빈 → 하노이)
4.22 (수)	○ (14:00) 응우옌 쯔 중 前부총리 감사패 전달
	○ (17:00) 응우옌 탄 콩 의원 간담
4.23 (목)	○ (17:25)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 JW메리어트 그랜드볼룸
4.24 (금)	[귀국] 하노이 - 인천 12:05 - 18:35 (4h30m, KE442)

□ 닌빈성 지도부 간담

- 일시/장소 : 4.20(월) 17:00 / 닌빈성 당위원회
- 참석자 : 한국 중소기업대표단, 쩌 후이 뚜안 닌빈성 당서기, 응우옌 탄 빈 닌빈성 성장, 응우옌 탄 콩 국회의원 등
- 주요내용 : 닌빈성 투자 환경, 한국 중소기업 투자 협력 방안 등 논의
- 현장사진



□ 옌방 산업단지 시찰

- 일시/장소 : 4.21(화) 10:00 / 옌방 산업단지(Diamond Complex)
- 참석자 : 한국 중소기업 대표단, 옌방 산업단지 하이 아잉·강인기·최인준 부사장 등
- 주요내용 : 옌방 산업단지 소개, 산업단지 내 한국 농기계 전용 공단 조성 관련 논의 등

< 옌방 산업클러스터 개요 >

- (위치/규모) 닌빈성 / 50ha
- (투자분야) 기계, 전기·전자 및 자동차 부품 등
- (입지/물류) 고속도로 **톨게이트 인접**(5분내 주요도로 접근가능), 하이퐁 항구 120km 거리
- (노동/인력) 닌빈성 인근 인구 약 **400만명**, 월평균임금 약 **3~400달러**
- (인 프 라) 전력·폐수처리설비(베트남 기준 A급) 등 완비
- (토지가격) m²당 **90~95달러**

○ 현장사진



□ 응우옌 쯔 쯔 前 부총리 감사패 전달

- 일시/장소 : 4.22(수) 14:00 / 응우옌 쯔 쯔 前부총리 사무실
- 주요내용 : 응우옌 쯔 쯔 前 부총리에게 감사패 전달
- * 응우옌 쯔 쯔 前부총리의 일정 변경으로, 환담 없이 실무자 통해 감사패만 전달

	<p style="text-align: center;">감 사 패</p> <p style="text-align: right;">베트남 부총리 응우옌 쯔 쯔</p> <p>귀하께서는 베트남 부총리, 기획투자부 장관을 역임하며 대한민국과 베트남 양국 중소기업 간 교류·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하셨으며, 기업은행의 베트남 현지 법인 설립 인가 등 우리 중소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애로 해소를 적극 지원하셨기에 깊은 감사의 뜻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6년 4월 중소기업중앙회장 김기문</p>
--	---

□ 응우옌 탄 콩 의원 간담

- 일시/장소 : 4.22(수) 17:00 / 하노이 롯데호텔
- 참 석 자 : 한국 중소기업대표단, 응우옌 탄 콩 국회의원, 강인기 연방 산업단지 부사장 등
- 주요내용 : 한국 중소기업과 닌빈성 협력 방안 논의 등

□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 일시/장소 : 4.23(목) 17:25 / JW메리어트 하노이 그랜드볼룸
- 주 최 : (한)대한상공회의소, 산업통상부 / (베)재무부
- 참석자 : 한·베 정부관계자, 기업인 등 500여명
 - 중앙회 : 중앙회장, 권혁홍 수석부회장, 김신길·김한영·이한욱·강동한·박평재·최우각 부회장
 - 경제단체 : 최태원(상의), 윤진식(무협), 손경식(경총), 최진식(중견련)
 - 대기업 : 이재용(삼성), 구광모(LG), 신동빈(롯데), 정기선(HD현대) 등
- 주제 : ① 투자 및 무역협력, ② AI·과학기술 기반 첨단산업 혁신, ③ 에너지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
- 세부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비고
17:25-17:40	개회식	(한)이재명 대통령 (베)레 민 흥 총리
17:40-17:45	장내정리	
17:45-18:25	양국 주제발표	한국측 4개 / 베트남측 4개

○ 현장사진



중기 대표단, 베트남 닌빈성과 '연방 농기계 산단 조성' MOU

한국농기계조합, 민간경제협대
국빈방문 계기로 국제 성과 도출
지방정부와 산업 협력기반 강화

이재명 대통령의 베트남 순방(21~24일)에 동행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단이 한-베트남 간 민간 경제교류 확대에 나섰다. 대표단은 23일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주요 경제부처 관계자 및 기업인들과 교류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김기문 "베트남 투자 더욱 활발해질 것" 앞서 대표단은 20일 베트남 북부 신흥 산업지대로 부상하고 있는 닌빈성을 방문해 현지 푸안당사기와 응우옌 탄 빈 성장 등 현지 지도부와 간담을 갖고 산업단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8월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과 함께 연방 산업단지를 점검한 이후 후속 협력을 구체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기문 회장은 간담회에서 "베트남

은 한국의 3위 무역상대국이자 1만 개 이상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는 중요한 파트너이며 이 중 90% 이상이 중소기업"이라며 "이번 한-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혁신기술을 베트남 기업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한 투자·교류 확대가 중요한 만큼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해 닌빈성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과 연방 산업단지 간 업무 협약(MOU)이 체결돼 베트남 내 농기계 산업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양측은 연방 산업클러스터 내 농기계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제조·조립시설 구축과 기술 이전, 현지 인력 교육 등 전반적인 협력에 나서게 될 예정이다.

동남아 시장 진출 거점 확장

연방 산업클러스터는 하노이에서 약 85km 거리에 위치한 50ha 규모 산업단지. 기계·전기전자·자동차 부품 분야 투자가 가능한 인프라와 물류 접근성을



중소기업대표단과 닌빈성 지도부와의 간담을 마치고 양측 인사들이 기념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왼쪽 네번째부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허이 아영 연방산업단지 부사장,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권후이 푸안당사당 서기, 응우옌 탄 빈 닌빈성장.

갖추고 있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현재 필리핀에서도 전용 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 중으로, 베트남에서도 유사한 모델을 통해 동남아 시장 진출 거점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순방을 계기로 중

앙정부 간 협력에 더해 지방정부와의 실질적인 산업 협력 기반을 강화하며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다. 정부의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민간 차원의 지속 가능한 경제교류 모델을 구축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일 닌빈성 당위원회에서 열린 신임 닌빈성 지도부와의 간담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이 권후이 푸안당사당 서기(오른쪽)로부터 기념품을 전달받고 있다.

서울신문

李 "희토류 등 공급망 연계 강화... 새로운 '홍강의 기적' 만들자"

권력 서열 2.3위 만나 '세일즈 외교' 첨단산업·과학기술 등 협력 계단 호찌민 좌우명 '이불변 웅만변' 인용 "변치않는 우정, 변화 대응 확실한 답" 홍 총리, 신산업 분야 공동 추진 요청 인프라·소비재·금융 등 73건 MOU 이채용 "기업인은 실적으로 말해야"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한국과 베트남의 주요 기업인들을 만나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 요소수 등 에너지 자원 분야의 공급망 연계를 강화해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 새로운 '홍강의 기적'을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베트남 권력 서열 2.3위인 총리, 국회의장과 각각 면담하며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세일즈 외교'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노이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사전간담회에서 양국 기업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 네 번째부터 권 후이 총리, 이 대통령,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SK그룹 회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채용 삼성 전자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위기 상황에서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 경제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즈니스 포럼 환영사에서 ▲미래 첨단산업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 및 에너지 협력 ▲과학기술 협력의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은 그간 베트남에서 반도체 패키징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의 기틀을 착실히 다져왔고 앞으로는 생산설비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원유와 희토류 등 공급망과 에너지 협력 관련 "원전, 재생에너지, 장거리 전력망 구축 등 에너지 분야 전반에 걸쳐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무

궁무진한 만큼 앞으로 상호협력의 지평을 더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학기술 협력에 대해 "양국이 체결한 한-베트남 과학기술 혁신 마스터플랜 프레임워크"를 통해 우리 양국은 과학기술 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국부 호찌민 전 주석이 남긴 '이불변 웅만변(不變 萬變)

을 인용하며 "변하지 않는 것으로 모든 변화에 대응한다라는 이 지혜의 단 한 마디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양국의 변치않는 우정이야말로 우리 앞에 닥친 복잡한 변화에 대응할 가장 확실한 답"이라고 강조했다.

레임 흥 베트남 총리는 양국의 협력이 실질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재언했다. 그는 "생산과 연구, 혁신이 결합된 클러스터를 만들어 신산업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을 하길 바란다"며 "기술 이전을 넘어 연구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 사업을 전개하고 기술 상용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포럼에는 한국과 베트남을 대표하는 기업 총수들이 대거 함께하며 첨단기술, 소비재, 인프라, 에너지, 금융 등 분야에서 73건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채용 삼성전자 회장은 취재진에 "기업인은 실적으로 말해야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삼성"은 베트남 성공은 삼성의 성공이라는 믿음 하에 함께 성장하겠다"며 젊은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했다. 하노이 김진·이승욱 박기석 기자

🏠 > **CHÍNH TRỊ** > Thời sự

Đồng chí Bí thư Tỉnh ủy Trần Huy Tuấn tiếp Hiệp hội doanh nghiệp vừa và nhỏ Hàn Quốc

Thứ Hai, 20/04/2026, 19:49



Ngày 20/4, tại trụ sở Tỉnh ủy, đồng chí Trần Huy Tuấn, Ủy viên Trung ương Đảng, Bí thư Tỉnh ủy đã có buổi tiếp và làm việc với Đoàn công tác của Hiệp hội Doanh nghiệp vừa và nhỏ Hàn Quốc (KBIZ) do ông Kim Ki-mun, Chủ tịch Hiệp hội làm trưởng đoàn, đến thăm và tìm hiểu cơ hội đầu tư tại địa phương.



Quang cảnh buổi tiếp.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첨단인력·에너지 등 경험 모색

송고 2026-04-23 22:36

양국 정·재계 인사 500여명 참석...70여건 MOU·계약 실질 성과
최태원 "베트남, 기회의 땅 아니라 미래 만드는 파트너"



이재명 대통령과 한-베트남 기업인들

(하노이=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레 민 흥 베트남 총리가 23일(현지시간) 하노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포럼 사전간담회에서 양국 기업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2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한국과 베트남을 대표하는 주요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국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23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레 밍 흥 베트남 총리를 비롯해 양국 정·재계 주요 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박지원 두산에너지빌리티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베트남에서도 응우 반 뚜언 재무부 장관, 레 마잉 흥 산업무역부 장관, 부 하이 꾸안 과학기술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레 응옥 선 PVN 회장, 당 호앙 안 EVN 회장, 당 응옥 화 베트남항공 회장 등 핵심 국영·민간기업 수장들이 모였다.

최태원 회장은 축사에서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을 기회의 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베트남은 더 이상 기회의 땅이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파트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제 남은 건 서로 더 많이 만나고 더 과감하게 협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 한-베트남 비즈니스포럼 발언